



사진1



사진2

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... ㉔ 곱돌등잔[납석등잔(蠟石燈盞)]

곱돌[납석(蠟石)]로 만든 돌 등잔의 하나이다. 곱돌은 활석(滑石)이나 동석(凍石)과 같이 만지면 양초처럼 매끈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암석을 말하는데 등잔뿐만 아니라 화로나 냄비, 솥, 탕관(湯罐) 등 여러 가지 생활용기에 쓰였다. 그 가공이 어렵긴 해도 특히 열에 강하고, 따뜻한 기운을 오래 보존할 수 있어 식생활 및 주생활 도구로 널리 애용되었다. 빛깔이 검어 옥석처럼 곱진 않지만, 오래 사용하다보면 그 재질에서 느껴지는 매끄러운 질감이 또 다른 맛을 자아낸다.

재질이 석재(石材)이다보니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가공할 때 미리 등잔의 가장자리 양끝에 따로 혹처럼 생긴 돌기(突起)를 만들었다. 여기에 구멍을 내고 동근 쇠고리를 꽂은 다음, 그것에 등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철선을 꿰었다. 이 철선은 등잔을 들거나 옮길 때 손잡이로, 또는 걸거나 매달 때 걸이용 고리로 쓴다.

간혹 곱돌등잔은 그 생김새 때문에 다른 용기(用器)로 오인(誤認)되는 경우가 있다. 무엇을 끓이거나 달일 때 사용하는 탕관이나 제약탕기(製藥湯器), 솥 따위로 잘못 받아들인데, 형태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. 아래쪽 그릇에 무엇을 담아 조리한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. 가끔 전문박물관에 근무하는 전공자조차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, 자료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관찰이 요구된다.

설명 민병근(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)
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제공
사진 1) 곱돌등잔[납석등잔(蠟石燈盞)]// 조선시대 // 지름 18.2cm, 높이 7.2cm // 국립민속박물관
사진 2) 곱돌등잔[납석등잔(蠟石燈盞)]// 조선시대 // 지름 13.7cm, 높이 4.8cm // 국립민속박물관